

경기 중 '사진기자 난입 소동'



올해 US오픈 1회전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와 벤자민 봉지(프랑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진기자 난입 소동'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주인공은 터키 출신의 프리랜서 사진기자 셀죽 아카르(사진)다. 그는 경기 도

중 코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보안 요원의 제지를 받고 퇴장 조치를 당했으며,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그의 취재 자격증을 즉각 박탈했다.

아카르는 그러나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희생자이자 완전히 무고하다. 이번 사건은 마치 마녀사냥처럼 번졌고, 나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보안 요원이 '경기가 중단됐다'고 말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USTA는 "사진기자는 보안 요원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기 중 서브 사이에 코트로 진입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경기 흐름에도 큰 변수가 됐다. 3세트 막판, 봉지가 서브 게임을 치르던 중 아카르의 진입으로 경기가 약 6분간 중단됐다. 봉지가 첫 서브를 실패한 상황이었지만, 심판 그레그 엘런즈워스는 봉지에게 다시 첫 서브 기회를 부여했다. 이 판정에 메드베데프는 격분하며 심판에게 달려가 항의했고, 관중에게 야유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는 "넌 남자냐? 왜 그렇게 떠는 거냐?"라고 외치며 심판을 몰아세웠다. 결국 메드베데프는 3세트를 따냈지만, 이후 흐름을 잃고 5세트 끝에 패배했다(3-6, 5-7, 7-6<5>, 6-0, 4-6). 봉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미친 경기였다. 새로운 팬도 얻었지만 새로운 안티팬도 생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팝스타 스유프트-풋볼 스타 켈시 약혼

팝스타 테일러 스유프트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풋볼 스타 트래비스 켈시와의 약혼 소식을 전하며 "당신의 영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농담 섞인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켈시는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했고, 스유프트는 그의 얼굴을 감싸며 애정 어린 순간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2023년 여름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스유프트가 처음으로 캔자스시티 치프스 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같은 해 9월 24일이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스유프트는 "경기에 가기 훨씬 전



부터 이미 우리는 커플이었다"고 밝혔다.

켈시는 2023년 7월 팟캐스트에서 스유프트의 에라스 투어 공연에 참석했을 때 '전화번호가 적힌 우정 팔찌'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언급했고, 이 일화가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애정을 드러냈다. 스유프트는 NFL 경기장에서 켈시와 포옹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고, 켈시는 스유프트의 투어 무대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US오픈 총상금 사상 첫 9,000만불

지난해보다 20% 경증, 16강 진출해도 40만불

미국테니스협회(USTA)가 2025년 US오픈에서 역대 테니스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총상금 9,0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인 7,500만 달러를 20% 끌어올린 것으로, 단일 테니스 대회 최초로 9,000만 달러 상금을 돌파하게 됐다.

남녀 단식 우승자는 각각 5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이는 2024년 360만 달러보다 39% 증가한 금액으로 테니스 역사상 가장 큰 우승 상금이다. 단식 준우승자도 250만 달러(39% 증가), 준결승 진출자는 126만 달러(26% 증가), 8강 진출자는 66만 달러(25% 증가), 16강 진출자는 40만 달러(23% 증가)로 상금이 크게 인상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초반 라운드 및 예선 참가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상금을 재분배해온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남녀 복식 상금 역시 지난해 389만 달러에서 23% 늘

어난 478만 달러로 증액됐다. 특히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우승팀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

예선 대회 상금도 800만 달러로 10% 인상돼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또한 USTA는 최근 몇 년간 선수들의 자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써왔다. 올해 역시 모든 본선 및 예선 출전 선수에게 1,000달러의 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대회 공식 호텔에서 2개의 객실을 지원한다(타 숙소 선택 시 하루 600달러 지급). 이를 통해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경기당 최대 5자루까지 라켓 스트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발표로 US오픈은 상금 규모뿐만 아니라 선수 복지 측면에서도 세계 테니스 대회 중 가장 앞서가는 대회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 누구나 맞게 되는 65세.

☑ 누구나 갖게 되는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랜 선택에서 약 값 절약, 치과, 한의원, 골프 등 꼭 필요한 알짜배기 혜택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T.714.469.4905

메디케어상담



하혜연

시니어 보험 전문
CA LIC. #4019293